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6, pp.289-327
<https://doi.org/10.29212/mh.2018..106.8>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시대 벽제관의 군사, 외교적 의미

김경록*

1. 머리말
2. 조선시대 객사제도와 벽제관의 위상
3. 조선시대 대중국 사행과 벽제관
4. 조선시대 벽제관의 군사·외교사
5. 맺음말

1. 머리말

벽제관은 조선시대 대중국 관계에서 핵심적인 활동이 펼쳐진 외교의 공간이자, 王政과 善政이 시행된 공간이다. 또한, 임진전쟁시 전쟁의 큰 전환점을 가져왔던 군사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역사성으로 벽제관은 시대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현재 벽제관의 역사적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벽제관을 떠올리면 객사보다는 역참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적지 않다. 이는 驛制와 館制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다. 驛은 傳命 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사행파견 등 軍國의 중대사를 신속하게 보고 및 파악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통신기관이다. 이에 비하여 客舍(客館)은 奉命使臣의 숙소이자 王政이 지방사회에 시행되는 공간이었다. 벽제관은 객사와 역참을 겸하였지만, 그 기능을 바라보는 조선의 인식은 큰 차이가 있었다. 벽제관을 대중국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선은 역참보다 객사로서 중시하였다.

이러한 벽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적지 않았다. 이는 연구성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정작 벽제관의 원래 기능과 역할 및 의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먼저 벽제관에 대한 연구는 임진전쟁시기 벽제관전투를 중심으로 참전한 장수와 戰役 중심의 연구¹⁾, 일제강점기 벽제관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연구²⁾ 등이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이는 일제강점기 일인학자들의 식민통치에 대한 자료조사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벽제관은 주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및 객사건물 등 건축사적 관점에서 접근되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³⁾ 벽제관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역참, 역로, 역제에 대한

-
- 1) 妻木忠太, 「碧蹄館附近に於ける戰役につきて」, 『史學雜誌』17-8, 1906; 廣田直三郎, 「碧蹄館の會戰」, 『朝鮮講演』1, 1910; 岩佐蘆人, 「碧蹄館」, 『朝鮮』40, 1911; 淺見倫太郎, 「碧蹄館」, 『朝鮮及滿洲』50, 1912; 名越那珂次郎, 「碧蹄館役と立花宗茂」, 『朝鮮』174, 1929; 「碧蹄館役と小早川隆景」, 『朝鮮』184, 1930; 「碧蹄館役と豊太閤の感狀」, 『靑丘學叢』3, 1931; 徐仁漢, 「朝·明 聯合軍 騎兵作戰의 展開 樣相」, 『軍史』51, 2004; 김동철, 「임진왜란시기 벽제관전투 관련 자료와 전적현장에 대한 검토」, 『한국민족문화』27, 2006; 北島万次 著, 김유성, 이민웅 공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경인문화사』, 2008; 윤인식, 『역사추적 임진왜란 - 임진왜란 한국 일본 기록 비교』, 북랩, 2013;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박사학위논문, 2014; 이종수, 『류성룡, 7년의 전쟁』, 생각정원, 2015.
 - 2) 幣原坦, 「碧蹄館」, 『歴史地理』8-10, 1906; 韓圭茂, 「일제의 벽제관 전적지 개발과 활용」, 『한국근현대사연구』78, 2016.
 - 3) 유영수, 「조선시대 객사건축에 관한 연구」, 고려대석사학위논문, 1989; 안준호, 「조선시대 관아의 건축양식학적 고찰」, 대전대석사학위논문, 1998; 이연노, 주남철, 「조선초 객사건축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20-12, 2004; 여상진, 「조선시대 객사의 영건과 성격변화」,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5;

연구가 있어 교통과 운송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 연구가 있다.⁴⁾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반영하되, 벽제관의 역사성을 정치,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조선시대 객사체제와 벽제관의 위상을 먼저 살펴보고, 사행제도와 연관시켜 벽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벽제관의 정치·외교·군사사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은 벽제관의 정치·군사·외교사적 의미를 궁구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라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2. 조선시대 객사제도와 벽제관의 위상

조선시대 객관에 대한 개념 규정은 驛과 연관되어 명시되었다.⁵⁾ 일반적으로 사료에서 驛館으로 통칭되는 객관, 즉 숙소는 조선시대 각 고을에 설치되었던 館舍로 客館이라고도 한다. 객사는 고을의 아문 중심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어 국왕을 상징하는 殿牌와 闕牌를 모시고 節日 내지 행사시 국왕에 대한 禮를 행하는 장소이다.⁶⁾ 즉, 왕조국가에서

여상진, 심우갑, 「기문을 통해 본 조선시대 객사의 성격 연구」, 『대한건축학회지』21-4, 2005; 고양시, 『고양 벽제관 건축유적지 발굴조사보고서』, 2000; 최중희, 성재만, 「조선시대 객사의 입지 및 배치, 조정적 특성 - 벽제관, 전주객사, 금성관, 진남관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27-1, 2009.

4) 조병로, 「반계 유형원의 역제개혁론」, 『조선시대사학보』3, 1997; 방학봉, 「발해의 역참에 대하여」, 『선사와 고대』9, 1997; 조병로, 『한국역제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2; 『한국근세 역제사연구』, 국학자료원, 2005; 정요근, 「고려 역로망 운영에 대한 원의 개입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64, 2007; 「고려시대 역 분포의 지역별 불균등성」, 『지역과 역사』24, 2009; 한정훈, 「고려말·조선초 경상도 해안 역로망의 재편성」, 『지역과 역사』30, 2012; 윤재운, 「발해의 역참제와 교통로」, 『고구려발해연구』53, 2015; 조병로, 『조선시대 역참과 파발』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015.

5) 『經國大典註解』上, 吏典, 郵驛. 驛과 館은 傳命을 위해 설치되었다. “郵驛也 步傳曰郵 馬傳曰驛”.

6) 『조선세종실록』권10, 세종 2년 11월 계유. 동짓날이 되자 세종은 백관에게 명하

지존으로서 국왕의 권리를 대리하여 지방에서 다스림을 행사하는 지방관이 자신이 부여받은 왕권의 상징으로 설정한 공간이 객사였다. 그러므로 이곳 객사는 해당 고을의 수령이 부임하면 제일 먼저 拜禮를 올리는 장소이자,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向望闕拜를 행하던 공간이었다.

왕권의 상징이었기에 왕명을 파견된 중앙의 관리들은 이곳을 숙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국사신의 出來시 숙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객사는 조선시대 전국의 모든 아문에 설치되어 앞에서 언급된 기능을 수행했다.

조선국왕이 전국의 관원들에게 국왕권의 상징으로 객사를 설치하고, 절일에 한양의 국왕에게 망궐례를 행하도록 했는데, 정작 국왕도 절일이 되면 誥命을 받아 왕권의 정통성을 내세우게 된 황제에 대해 望闕禮를 왕궁의 正殿에서 행했다. 조선국왕은 먼저 자신이 황제에 대해 백관을 이끌고 망궐례를 행한 뒤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⁷⁾ 백성에게 국왕권을 대리한 지방관으로서 자신들의 다스림을 공개적으로 펼치는 공간이었기에 최고 지방관인 관찰사가 해당 지방을 순시할 때는 대부분 객사에서 백성과 다스림의 종사하는 지방관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어 국왕의 愛民함을 표현했다. 이는 최고 권위를 가졌던 공간이 일면 지배 권력이 피지배자와 만남의 공간임을 의미하며, 善政의 공간이 된다.

한편, 都會의 객사는 지방의 鄉試가 베풀어지는 공간이었다.⁸⁾ 조선은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지방관을 통해 勸學을 강조하였으며, 향시는 지방사회에 대한 국왕과 지배층의 인재등용 창구이면서 지역에 대한 배려라 할 수 있다. 특히, 權近在 권학에 대한 조목을 태종에게 건의하며 언급한

“前廟(고려) 시기에는 지방에 있는 閑良과 儒臣이 私私로이 書齋를 두어서 後進을 敎誨하여, 스승과 생도가 각기 편안함을 얻고 그 학업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여 망궐례를 행하게 하고, 여러 道の 賀箋과 方物 올리는 것을 정지하도록 했다.

7) 『조선세종실록』 권132, 五禮, 嘉禮序例, 排班圖, 正至及聖節望闕行禮之圖.

8) 『조선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3월 무인.

師儒가 간혹 다른 지방의 教授가 되어, 가족과 떨어지게 되어 生業을 廢하게 되므로, 모두 반드시 免하려 하고, 生徒는 鄉校에 강제로 나오게 되어 편안히 공부하지 못합니다. 守令이 간혹 書寫의 일을 使役시키며 勸學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廢弛됨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방의 儒臣이 私私로이 書齋를 두어 敎訓하는 자를 함부로 다른 지방의 教授로 정하지 못하게 하고, 生徒를 강제로 鄉學에 나오게 하지 말고, 監司와 守令이 또한 勸勉하도록 하여, 각자 편안히 살면서 講學하여 風化를 돕게 하소서”⁹⁾

라고 하였으니, 이를 통해 조선이 향학과 향시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권근의 상소문 가운데 과거에서 경전이 중요하지만, 중국의 사신과 唱和하여 문물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언급을 통해 科擧의 외교사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향시의 시행과 講學의 정치가 지방의 객사라는 공간에서 시행된 점은 국왕의 선정을 대리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객사는 고려시대에 이미 존재하여 몽골사신이 내왕할 때 숙소와 연회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¹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사는 지방의 관아에서 중요한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典型화된 건물의 구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중심에 위치한 正堂을 중심으로 좌우에 翼室이 있었으며, 전면에 中門·外門이, 측면에 廡廊 등이 부속되었다. 실제 奉命使臣이 유숙하였기 때문에 정당은 기와와 돌을 깔고 좌우의 익실은 온돌로 하였다.¹¹⁾

9) 『조선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3월 무인. “前朝之時 在外閑良儒臣 私置書齋 敎訓後進 師生各得所安 以成其學 今者師儒 或爲他州教授 違離家屬 廢棄生業 皆欲苟免 生徒逼令赴其鄉校 不得自便受業 守令或役以書寫之務 名爲勸學 實多廢弛 自今在外儒臣 私置書齋敎訓者 毋敢定爲他州教授 生徒毋令強赴鄉學 監司守令乃加勸勉 使各安居講學 以裨風化”.

10) 『東文選』 권19, 七言絶句, 東都客館. 金君綏가 지은 ‘東都客館’에 “武烈王孫文烈家 鷄林骨得無誇 故鄉尙在天東角 今幸來遊作使華”으로 당시 객관에 사신이 유숙함을 표현했다.

11) 최중희, 성재만, 「조선시대 객사의 입지 및 배치, 조경적 특성-벽제관, 전주객사, 금성관, 진남관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2009. 76쪽.

조선시대 객사는 중국사행의 유숙공간과 국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명을 받은 사신의 숙소이자 왕명을 근거로 지방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선정의 공간이었다. 이는 전국의 관아에 분포되어 조선의 지방통치체계가 정비되는 과정에 일치되어 정비되었다. 이에 비하여 중국사행의 유숙공간으로 객사는 일명 義州大路로 불리는 한양에서 의주에 이르는 사행로의 객사들이다. 이들 객사는 왕명을 넘어서 皇命을 받은 사신이 유숙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규모와 시설 면에서 다른 객사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객사는 세종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조선 세종대 황해도, 평안도 館路 및 驛路체계

지 명	객 사	비 고
高 陽	碧蹄館	驛(碧蹄)
坡 州		驛(馬山)
長 湍		驛(白翎)
松 都	太平館	
平 山		站(金巖·寶山·安城), 驛(麒麟)
瑞 興		站(龍泉·洞仙), 驛(新興)
鳳 山		站(岳嶺·劍水), 驛(陶工·所串)
黃 州		站(敬天), 驛(丹林·新蓋)
中 和	生陽館	
平 壤	大同館	
順 安	安定館	
肅 川	肅寧館	
安 州	安興館	
嘉 山	嘉平館	
定 州	新安館	
郭 山	雲興館	
宣 川	林畔館	
鐵 山	車嶺館	
龍 川	良策館	
所 串	定寧館	
義 州	義順館	

* 전거 : 『세종실록지리지』

황해도의 경우, 站路에 察訪 1인을 두어 해당 역참을 관장하며, 소속된 站은 金郊·興義·金巖·寶山·安城·龍泉·劍水·岫嶺·洞仙·敬天 등 10곳이었으며, 평안도의 경우, 館路에 察訪 1인을 두어 해당 객관을 관장하며, 소속된 관은 生陽館·大同館·安定館·肅寧館·安興館·嘉平館·新安館·雲興館·林畔館·車輦館·良策館·所串館·義順館 등 모두 13곳이었다. 객사의 경우, 주로 도회지의 객사는 별도의 명칭이 있었는데, 평안도의 예를 들면 中和의 生陽館, 順安의 安定館, 肅川의 肅寧館, 安州의 安興館, 嘉山の 嘉平館, 義州의 義順館 등이다.

한양에서 의주까지의 교통체계는 평안도의 경우, 단순한 驛路로 운영될 뿐 아니라 객사체계와 일체화되어 館路로 운영되었다. 즉, 전국을 치밀한 역로체계로 정비하면서 평안도를 중국사행의 왕래에 편리를 위하여 객사체계와 일원화시켜 운영한 것이다. 이때, 경기도의 경우는 벽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역로체계에서 사행의 왕래에 편리를 제공했으며, 개성의 경우는 기존의 태평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했다. 세종대를 기준으로 경기, 황해, 평안도의 역참체계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조선 세종대 경기, 황해, 평안도 역참체계

구 분	驛 站
경기도	重林道驛(慶申·石谷·盤乳·南山·金翰·種生) 同化道驛(長足·海門·菁好·加川·康福) 平丘道驛(仇谷·雙樹·奉安·娛賓·田谷·冬白·甘泉·連洞) 慶安道驛(德豐·阿川·吾川·留春·楊花·新津·安平) 桃源道驛(仇和·白嶺·玉溪·龍潭·丹金·相水)
경기좌도	驛(綠楊·安奇·梁文·豐田)
경기우도	驛(迎曙·碧蹄·馬山·東坡·招賢·靑郊·狻猊·中連)
평안도	生陽館·大同館·安定館·肅寧館·安興館·嘉平館·新安館·雲興館·林畔館·車輦館·良策館·所串館·義順館
황해도	站(金郊·興義·金巖·寶山·安城·龍泉·劍水·岫嶺·洞仙·敬天) 靑丹道驛(金谷·深洞·望行·金剛·文羅·金洞·新行·維安) 麒麟道驛(達滿·三支·元山·眞木·朴山·文羅·安山·所串·陶工·所串之·丹林·新盧·所坪·位羅·新興·延陽)

* 전거 : 『세종실록지리지』

조선이 역제와 관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는 즉위교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건국직후 향후 국가통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즉위교서를 반포했다. 즉위교서는 종묘사직을 비롯한 국가의 권위, 운영에 필요한 중요 제도를 모두 포함했는데, 驛制와 館制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驛과 館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에 使命이 번거롭게 많아서 피폐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다. 지금부터는 差遣하는 공적인 使行에게(官에서) 給料을 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용무로 왕래하는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供給을 정지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主客을 모두 論罪한다.”¹²⁾

역로와 역참을 포함한 역제와 객사는 왕명의 신속한 전달과 변경의 軍國事務를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국가제도의 大脈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즉위교서에 명시된 역제와 관제는 사명의 전달에 핵심이 있었다. 조선은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전국의 역로를 확대 개편하였는데, 이는 지방통치의 정비과정과 연관되어 시행되었다.¹³⁾

태조대는 고려시대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북방지역의 역로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면, 태종대는 전국을 8道체제로 전환하면서 역참의 재편을 본격화하고, 세종대는 이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세종실록』 「지리지」로 편찬하기도 했다.¹⁴⁾

구체적으로 조선의 역참은 역로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조선의 역로는 大·中·小路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2) 『조선태조실록』권1, 태조 1년 7월 丁未. “驛館之設 所以傳命 近來使命煩多 以致凋弊 誠可憫焉 今後除差遣公行廩給外 私幹往來者 勿論尊卑 悉停供給 違者主客皆論罪”.

13) 『조선태조실록』권10, 태조 5년 7월 임오; 권13, 7년 2월 경진. 태조 5년에 고려시대 5道 兩界를 개편하고 서북면의 군현을 개정한 뒤, 태조 7년에 정도전을 파견하여 동북면 군현을 정비하면서 역을 확대 신설했다.

14) 조병로, 『한국역제사』, 한국마사회, 2002. 185~187쪽.

〈표 3〉 조선시대 역로체계

구분	지역구분	세 부 역 로
大路	경기도	양재·낙생·구흥·영서·벽제·마산·동파·청교·산에·녹양·안기·양문
中路	경기도	금령·좌찬·분행·무곡·가천·청호·평구·봉안·오빈
	충청도	장양·태랑·울봉·쌍수·덕류·증약·가화·도파·회동·신흥·성환·신은·김제·광정·일신·경천·평천·연원·용안·단월·황강·수산·장림·안부
	경상도	요성·유곡·덕통·낙양·낙원
	전라도	삼례·반석·앵곡·양재
	강원도	풍전·생창·직목·창도·신안·은계
	황해도	금교·흥의·금암·보산·안성·용천·검수·동선·소곳·경천·단림
	평안도	생양·대동·안정·숙령·안흥·가평·신안·운흥·임반·차련·양책·소곳·의순
함경도	고산·남산·봉룡·석안·철관·양기·통달·화원·초원·봉대·평원·덕산·함원·신은·평포·오천·가산·시리·곡구·기원·마곡·영동·임명·웅평·고참·명원·수성·주촌·요참·오촌·석보·회유·풍산·역산·무안·녹야·덕명	
小路	기타	

* 전거 : 『대전회통』 권4, 병전, 驛路.

이들 역로 가운데 각 道로 가는 奉命使臣을 비롯한 사행원들은 길을 나누어 往來해야 했는데, 忠淸右道·全羅右道로 왕래할 경우에는 衿川·水原을 경유해야 하고, 忠淸左道·慶尙左道로 왕래할 경우에는 廣州·利川을 경유해야 하며, 全羅左道·慶尙右道로 왕래할 경우에는 果川을 경유해야 했다. 이를 위반하면 觀察使가 糾擧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¹⁵⁾

벽제관은 처음에는 역로체계에 포함되면서 객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지만, 한양으로 천도한 뒤 出來하는 중국사행을 위한 객사로 활용되면서 설립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태종·세종대 대신이었던 鄭以諤가 지은 碧蹄館記는 벽제관의 연혁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료이다.

“... 洪熙 기원 갑진년 8월에 현감 河君이 처음 와서, 公館이 무너지고 더러워도 수리하지 않는 것을 돌아보고, 군은, ‘이렇게 되어서는 王人을 禮待할 수 없다.’ 하였다. 다음 병오년 봄에는 거의 다 무너졌으므로, 감사 沈道原에게 고하여, 조정에

15) 『대전회통』 권4, 병전, 驛路.

轉聞하게 하여 윤택하는 교지를 받들었다. 재목을 모으고 장인을 불러서 그해 가을 8월에 역사를 시작하였다. 집이 높고 아름다우며, 제도가 크고 넓으니, 질서가 있게 단단하여 한 가지도 빠진 것이 없다. 담장을 두르고 꽃나무를 섞어 심어서 무성하였다. 東軒 앞에는 못을 파서 蓮을 심었고, 西軒 앞에는 돌을 빼고 우물을 팠다. 여름과 봄 사이에는 햇빛이 명랑하고, 연꽃이 향기로우며, 샘물이 차고 맑으니, 이것은 또 다른 현에는 없는 것이다. 文廟와 학교를 건립하고, 南別館과 옛 관청도 옛 제도에 보태기도 하고 새 집을 창건하기도 하여, 차례로 이루니 웅장한 모습이 서로 바라보인다. 무신년 11월에 공사를 마치고, 하군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기문을 청하였다. 대저 하군이 고양을 다스림과 고양이가 하군을 만남이 다른 때가 아니고, 오늘이 된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리오. 지금 나라가 태평한 지 오래되어, 백성은 수송하는 수고로움이 없으며, 오직 밭 갈고 우물 파는 것을 일삼았으니, 원념된 자는 정령이 번거롭지 않아도 공이 쉽게 이루어졌음을 알겠다. 더구나 하군은 仁으로써 어루만져 사랑하고 義으로써 시행하고 있다. 그 역사에 무리 지어 달려와서 공역을 도운 것이 반드시 분명하다. ...”¹⁶⁾

즉, 1425년(세종 7) 고양현감 하군이 객관의 부실함을 이유로 수리를 건의하고, 다음 해 객관이 무너지자 경기감사 심도원에게 보고하여 세종의 윤택을 받고 새로이 벽제관을 건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1428년(세종 10) 11월에 완공하여 정이오가 기문을 적게 되었다. 기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현감 하군이 객관의 重修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중국사행의 禮待라는 점이다. 벽제관이 일반 객사와 달리 중국사행의 入京 직전에 유숙하는 공간이므로 그 역할에 적합한 공간으로 건축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하군의 노력으로 벽제관은 새로 건축되었으며, 정이오가 표현한 바와 같이 황명을 받든 중국사행의 객사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碧蹄館은 郡 동쪽 15리에 건축되어 倪謙, 祈順, 董越 등 중국사신이 한양에 들어가기 전에 유숙하며, 벽제관을 읊은 시를 지어 남겼다.¹⁷⁾

1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 경기, 고양군, 宮室.

1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 경기, 고양군, 驛院.

3. 조선시대 대중국 사행과 벽제관

조선시대 대중국관계는 조선의 국가안위와 관련된 최대 외교관계였다. 명·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은 대중국 관련 외교관계를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 명·청에서 제시한 외교절차를 준수하였다. 조선시대 대중국관계는 조선의 사행파견과 중국의 사신접대를 통해 조선의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국가이익을 추구했다. 사행파견과 사신접대는 상호간에 장단점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신접대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었다.¹⁸⁾

첫째, 사행파견은 외교사안의 시작을 의미하는 반면, 사신접대는 외교사안의 해결을 의미한다. 특히, 封典의 경우처럼 책봉을 받거나 誥命을 받는 경우는 의례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왕세자의 책봉을 명으로부터 받지 못하던 광해군 입장에서는 정치사적 의미가 있다.¹⁹⁾

둘째, 사행파견은 한 가지 사안의 시작단계에서 진행단계에 해당한다면, 사신접대는 해당 사안의 해결과 함께 조선의 입장에서는 부수사안의 추가해결을 의도할 수 있는 기회였다.

셋째, 조선에 출래하는 사신은 중국의 중앙정계에서 일정한 권력층에 속하는 인물이므로 조선의 대중국 외교에서 인적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다.

넷째, 사행파견은 조선의 입장을 전달하기엔 중국의 엄격한 제도적인 한계가 많았다. 특히, 명대이후 청대까지 철저히 절대 황제권력의 확립은 모든 행정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여 모든 행정업무의 문서화 작업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명대의 내각과 환관세력은 이러한 문서화작업의 두터운 벽이었다.²⁰⁾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의 필요성에

18)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 『한국학보』117, 2004. 참조.

19) 『迎接都監都廳儀軌』(奎 14545).

20) 吳緝華, 『明代制度史論叢』第2集, 臺灣學生書局, 1971. 참조.

의해 사행을 보내더라도 복잡한 단계의 행정체계를 통과하여 조선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키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사신접대는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 조선의 입장과 요구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사신접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행과 견보다 효율적이었다. 조선시대 전체를 조망하면 조명관계에서 明使의 과도한 요구가 있었지만, 淸使는 초기를 제외하고 접대비용이 높지 않았음은 확인된다. 청사의 접대가 명사접대에 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용되지 않았음은 명과 청의 정치-경제상황이 다른 점에 기인한다.²¹⁾

조선시대 중국사신에 대한 접대절차는 사신에 대한 접대절차는 ① 平安監司의 出來報告, ② 報告接受, ③ 迎接都監設置, ④ 館伴選定, ⑤ 遠接使差出, ⑥ 問禮官·差備官 選定, ⑦ 各地通過地點迎慰使選定, ⑧ 遼東都司隨行時都司宣慰使差出, ⑨ 御前通事選定, ⑩ 年小宗親駙馬의 司饗院提調遞任, ⑪ 人情雜物豫備, ⑫ 사신의 서울도착, ⑬ 太平館에서의 영접, ⑭ 宮闕에서의 行禮, ⑮ 太平館에서의 下馬宴 등으로 구성된다. 사신접대와 관련되어 왕명으로 차정된 인원은 약 63명에 이른다.²²⁾ 중국사신이 경유하는 의주부터 벽제관까지는 한양에서의 접대를 위한 노정상의 접대라 할 것이다. 중국사신의 입장에서 이 가운데 도강하여 제일 먼저 조선관원을 대하는 의주의 접대와 한양에 입성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황제문서의 각종 의주를 마무리하는 벽제관의 접대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平安監司의 出來報告와 중앙정부에서 報告를 接受하면 중국사신이 지참하는 황제문서의 종류에 따라 조선은 期日 전에 그 의식절차를 예행 연습하였다.²³⁾ 또한, 조선은 迎接都監을 설치하고, 영접도감의

21) 최소자, 「淸朝의 대조선정책 - 康熙年間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5, 1996.

22)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 『한국학보』117, 102쪽.

23) 『經國大典』禮典 朝儀條.

업무를 분장했는데, 분장사항은 勅使의 牌文이 조선에 도착하면, 영접 도감 당상관과 낭청을 이조로부터 啓下하고, 分戶曹에서 會同하여 맡은 일을 나누어 거행하였다. 이어 館伴選定, 遠接使差出이 진행되는데, 원접사는 의주에서 사신을 접대하여 서울까지 동행하면서 각지에 파견되는 영위사를 통솔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外都監의 최고 통제 업무관 원이었다.

사신출래의 牌文이 吏曹에 도착하면, 遠接使(回程할 때에는 伴送使)를 國王의 재가를 받아 차정하여 파견하였다. 이때 上使·副使의 差備官은 사역원 堂上官이 각각 2원, 堂下官이 각각 2원, 大通官의 差備官은 堂下官이 각각 1원, 遠接使의 差備官은 堂下官 1원으로 차정하여 함께 출발하였다. 이들 원접사일행은 차정되면 바로 역마를 달리어 義州에 도착하여, 중국 사신이 金石山에 이르기를 기다렸다. 중국사신이 금석산에 도착하면 差備官을 보내어 사신에게 問候하고, 이어서 사신 오는 事由를 알아보았다. 遠接使와 平安監司가 차비관의 보고를 바탕으로 聯名으로 국왕에게 狀啓하면 승정원에서 각처의 迎慰使를 당상관 가운데 嘉善大夫로 結銜하여 차정하였다.

또한, 問禮官과 후속 差備官을 選定하고, 各地의 迎慰使를 選定하였다. 영위사는 원래 宣慰使라고 일컬었으나, 선조 34년(1601)에 宣慰라는 말이 王人을 尊敬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여, ‘迎慰使’라고 고쳐서 불렀다. 영위사는 그 程途를 계산하여 차례대로 출발시켜 보냈는데, 다섯 곳(義州·定州·安州·平壤·黃州)에 兩西의 수령으로 差送하여 문안하였다. 安州問安中使와 세 곳(平壤·黃州·松都)의 문안사는 承旨나 道內의 수령 중에서 일찍이 승지를 지낸 사람으로 차정하였다.

사신이 회정할 때에는 세 곳(송도·평양·의주)에 도내의 수령 중에서 승지를 역임한 수령을 문안사로 차정하였다. 별도로 安州問安中使를 파견하였으며, 각지의 영위사와 문안사는 모두 御貼·名貼을 원접사와 반송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²⁴⁾ 遼東都司가 隨行할 때는 별도로 都司

宣慰使를 差出하였다.

이처럼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하는 절차 이외에 御前通事의 선정, 연소한 宗親駙馬를 司饗院 提調로 遞任하고, 人情雜物을 豫備하고,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면 弘濟院 別問安使(대신 1인, 승지 1인)을 파견하여 접대하였다. 弘濟院에서 사신이 옷을 갈아입고 郊外迎接의 儀式이 設行되었으며,²⁵⁾ 뒤이어 모화관에서 迎詔儀, 迎勅儀를 행했다²⁶⁾. 뒤이어 太平館에서의 영접이 이어지는데, 館所 問安使는 入京日로부터 回還日에까지 매일 1차씩 宰臣이나 別軍職으로 차정하여 문안하고, 翌日問安中使를 별도로 파견하였다.

세부적으로 宮闕에서의 行禮절차는 사행의 임무에 따라 冊封儀, 弔祭儀, 傳訃儀, 查使儀 등의 의식이 행해지고²⁷⁾, 승례문을 통해 궁궐로 들어가서 詔勅授受儀를 행하고, 仁政殿에서 왕과 왕세자와 明使 사이에 백관이 列立한 가운데 樂이 연주되면서 接見儀式과 茶禮를 행하였다.²⁸⁾ 또한, 太平館에서의 見官禮, 下馬宴, 翌日宴이 베풀어졌다.²⁹⁾

서울에서 베풀어지는 연향은 下馬宴(태평관에 도착한 당일), 翌日宴(태평관에 도착한 다음날), 仁政殿請宴(入京後 3일째 되는 날 仁政殿에 오도록 청함, 만약 明使가 오지 않으면 태평관에 行幸하여 베풀), 回禮宴(入京後 4일째 되는 날 태평관에서 베풀), 別宴(入京後 5일째 되는 날 태평관에서 베풀), 上馬宴(回程日字가 정해진 뒤 태평관에서 베풀), 餞宴(回程日에 태평관에서 베풀) 등이 공식적인 것이며, 이외에 별도로 王世子, 宗親府, 議政府, 六曹 등도 돌아가며 잔치를 베풀었다.³⁰⁾

조선후기에는 많이 停減되어 3차례(仁政殿請宴, 館所宴, 郊外餞宴)

24) 『萬機要覽』財用編5, 支勅, 問安使次數.

25) 『通文館志』卷4, 事大, 郊迎儀.

26) 『조선세종실록』권39, 세종 10년 3월 신축. 권48, 12년 4월 병술.

27) 『通文館志』卷4, 事大, 冊封儀條, 弔祭儀條, 傳訃儀條, 查使儀條.

28) 『通文館志』卷4, 事大, 仁政殿接見儀.

29) 『通文館志』卷4, 事大, 見官禮儀, 入京宴享儀.

30) 『經國大典』禮典 待使客.

만 행하였다. 이러한 연향이 齋日과 겹치면 茶禮로 대행하였다. 연회의 명칭과 次數는 매양 臨時하여 가감하고 進退하는 예가 많아 일정하지는 않았다.³¹⁾ 중요 연향과 별도로 중간에 別茶啖·別餅 및 盤排가 행해졌는데 이는 조선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예부에서 부경사행에 대해 베푸는 연회와는 달리 명사에 대한 연회는 외교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는 장이었다. 근본적으로 명나라와 조선의 국정운영체제가 다른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조선의 입장에서는 연회를 베풀어 조선의 입장을 명사에게 전달하고, 명사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사신이 돌아가는 경우, 出京 전날에 太平館에서 앞으로의 여정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上馬宴을 베풀고, 出京 당일에 慕華館에서 餞宴을 베풀 뒤³²⁾ 百官이 慕華館 문밖 길 왼쪽에 品階에 따라 두 줄로 순서대로 늘어서, 사신이 列의 先頭에 이르면 백관이 일시에 再拜禮를 행하고 餞送하였다³³⁾.

조·명관계에서 명사의 접대는 황제명의로 지참한 황제문서를 접대한다는 의미가 있어 조선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규정된 接待儀註에 입각하여 明使를 접대했다. 원말 사회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한족국가 명을 건국한 홍무제는 내부적으로 禮治와 法治를 바탕으로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행정체제를 갖추어 통치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명 중심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공절차와 사행제도를 마련했다.

이러한 국내외적 필요에 의해 명 건국직후 『大明律』을 반포하고, 각종 禮制와 法制를 정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려와 조선은 대명관계를 위해 명에서 제시한 조공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 조공절차와 사행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황제가 제정한 法典을 거부 내지 시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명관계에서 치명적인 외교사건으로 비화

31) 『萬機要覽』財用編五 支勅 宴享式.

32) 『經國大典』禮典 待使客條.

33) 『經國大典』禮典 朝儀條.

되었기 때문이었다.

명대 모든 典章의 집대성이라 할 『大明會典』에 제시된 외교제도는 다음과 같다. 명대 각종 儀制는 禮部의 屬司였던 儀制清吏司에서 담당했는데, 朝賀, 朝儀, 登極儀, 冊立, 上尊號, 王國禮, 蕃國禮 등을 세부 항목에 따라 규정하고 이를 운영했다.³⁴⁾

〈표 4〉 明代 儀制의 構成體系

항목	세 부 항 목
朝賀	正旦冬至百官朝賀儀, 冬至大禮慶成儀, 萬壽聖節百官朝賀儀, 中宮正旦冬至命婦朝賀儀, 中宮千秋節命婦朝賀儀, 太皇太后·皇太后聖旦正旦冬至命婦朝賀儀, 東宮親王并妃正旦冬至中宮朝賀儀, 東宮親王并妃正旦冬至朝賀太后儀, 東宮正旦冬至百官朝賀儀, 東宮千秋節百官朝賀儀, 東宮妃正旦冬至命婦朝賀儀, 聖節正旦冬至王府慶祝儀, 聖節正旦冬至天下司府州縣慶祝儀
朝儀	朔望朝儀, 常朝御殿儀, 常朝御門儀, 午朝儀, 忌辰朝儀, 輟朝儀, 諸王朝見儀, 外戚朝見儀, 百官朝見儀, 諸司奏事儀(五軍都督府·吏部·戶部·禮部·兵部·刑部·工部·都察院·大理寺·五軍斷事官·十二衛合奏啓), 諸司朝覲儀, 入朝門禁, 東宮朝儀
登極儀	
冊立	皇后冊立儀(遣使冊立, 受冊受賀, 百官稱賀上表箋, 謁朝), 皇妃冊立儀, 皇嬪冊立儀, 皇太子冊立儀(冊立儀紹, 皇太子朝謝中宮, 諸王賀東宮, 諸王賀中宮, 百官進慶賀表箋, 百官進慶賀東宮箋, 內外命婦慶賀中宮, 謁朝), 皇太子妃冊立儀, 親王冊立儀(親王年幼受冊賀儀, 朝謝中宮, 謝東宮, 親王自行賀及百官賀諸王, 東宮及百官稱賀上表箋, 東宮賀中宮, 中宮受內外命婦賀, 東宮受百官賀), 親王妃冊立儀, 公主冊立儀, 皇子誕生儀, 皇子命名儀, 皇女誕生儀, 皇女命名儀
上尊號	皇太后上尊號儀(告祭, 上冊賀, 謁謝, 慶賀), 太皇太后上尊號儀, 皇太后上徽號儀(告祭, 上冊賀, 謁告, 受賀)
	耕藉(謁謝, 慶賀, 西苑耕斂), 視學(樂章, 還宮奏萬歲樂), 大射禮, 策士(殿試儀, 讀卷儀, 傳臚儀, 狀元率諸生士上表謝恩儀), 親蠶, 經筵(日講儀, 午講儀, 講大學衍義儀, 無逸殿講儀), 東宮出閣講學儀(初出閣儀, 每日講讀儀), 諸王講書儀, 巡狩, 親征, 論功行賞儀, 獻俘(宣捷), 東宮監國, 皇太孫監國
王國禮	封爵(奏報格式, 玉牒冊式, 奏請格式), 之國, 慶賀, 朝見, 慶祝(表箋, 進貢), 迎詔(迎祭, 受曆), 來朝, 奏事, 祭祀, 筵宴, 樂, 婚姻(請曆格式, 奏請格式, 奏選格式, 妾勝冊式), 儀賓(請曆格式), 宗學(書院, 府第, 內官內使衛校, 收買子女并物件), 獎諭, 邊犯禁例
蕃國禮	蕃王來朝儀(蕃國遣使進表朝貢, 蕃使進貢), 聖節正旦冬至蕃國聖闕慶祝儀, 蕃國迎詔儀(蕃國受印物), 官員禮, 庶人禮

* 전거 : 『萬曆會典』卷44~59.

34) 『萬曆會典』卷43, 禮部, 儀制清吏司, 朝賀; 卷44, 朝儀; 卷45, 登極儀; 卷46, 冊立 1; 卷47, 冊立2; 卷48, 冊立3; 卷49, 皇子誕生儀; 卷50, 上尊號; 卷51, 耕藉; 卷52, 經筵; 卷53, 巡狩; 卷54, 東宮監國; 卷55, 王國禮1; 卷56, 王國禮2; 卷57, 王國禮3; 卷58, 蕃國禮; 卷59, 官員禮.

이상의 儀制체계에서 조·명관계는 蕃國禮에 해당되는데, 蕃國禮에 규정된 의제가 없을 경우에는 王國禮를 준용했다. 황제국으로 명은 조공국의 사행을 접대하는 절차와 과정을 『대명회전』에 세부적으로 규정했다.³⁵⁾

〈표 5〉 明代 使行接待

구분	세부항목
賓客	會同館, 各國通事
給賜	在京官員人等(登極, 纂修, 經筵, 視學, 耕藉, 大閱, 冊立東宮, 節令, 慶賀, 陪祭扈從, 大臣特賜, 給假, 公差, 功賞, 雜給), 王府(回賜), 外夷上, 外夷下, 土官, 給賜番夷通例, 歲進

* 전거 : 『萬曆會典』 卷109-113.

명에 의해 규정된 황제문서의 접대는 『大明集禮』에 보다 집대성되었다. 매년 명에서 사신이 조선에 출래하면 조선은 前例를 상고하여 「使臣接待儀註」를 준비하고, 사신과 직접 儀註를 논의하여 시행했다. 이때 의주의 핵심은 조서, 칙서 등 황제문서를 맞이하는 의식이며, 대부분 수도 한양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의 사신이 주장하는 의식과 조선에서 준비한 의주가 일치한다면 별문제 없이 황제문서를 맞이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조선에서 준비한 의주에 중국사신이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주장대로 황제문서를 맞이할 것을 강요하면 사신접대에 큰 마찰이 초래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은 중국사신이 국경을 넘어오면 바로 問禮官을 파견하여 의주를 확정하고자 했다.³⁶⁾ 대표적이 사례가 성종연간에 있었던 『대명집례』의 의주논쟁이었다.³⁷⁾ 또한, 宣祖初에 조선에 사신으로 온 給事中 魏時亮은 조선국왕이 北面하여 詔書를 듣고, 자신은 西面하여 조서를 읽도록 位次를 정하자, 강력하게 자신이 南面할 것을 주장하여

35) 『萬曆會典』卷109, 賓客; 卷110, 給賜1; 卷111, 給賜2; 卷112, 給賜3; 卷113, 給賜4.
 36) 김경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44, 2000, 47~49쪽.
 37) 『조선성종실록』권64, 성종 7년 2월 임진.

결국 南面하여 宣詔하기도 하였다³⁸⁾.

객사는 지방관아에서 가장 의례행사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國祥 日에 望뵈는 곳으로 기능했다. 이때 황해도, 평안도의 경우에 중국 사신의 왕래가 國祥과 겹치면 일단 사신접대가 우선되어 조선의 관원 들은 중국사신이 묵는 객사를 피하여 다른 公廡에서 망곡했다. 일례로 1722년(경종 2)에 禮曹에서 청 勅使가 벽제관에 들어갔으므로 다른 公廡로 가서 望뵈 등을 행하도록 伴送使에게 통지할 것을 啓請하기도 했다.³⁹⁾

중국사행의 접대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물품이나 연향 등 사항이 있어 조선에서 면밀하게 준비했다. 그러나 적은 사례이지만, 중국사신 이 요구하여 거리가 짧은 객사는 그냥 통과하여 사행기간을 줄이는 경 우도 있었다. 일례로 1539년(중종 34) 조선에 사행한 중국사행은 처음 의주에서 원접사와 만났을 때, 한양에 들어오는 날짜를 정했지만, 車輦 館을 그냥 통과하여 다음 林畔館에 숙소를 정하고, 한양에 들어오는 일 자를 약 6일 정도 앞당기도록 요구했다. 이에 원접사는 긴급하게 국왕 에게 보고하여 사행의 일정을 통보하자 조선 조정은 전체 일정을 수정 하고 관련되는 접대 및 준비사항을 서둘러 시행하기도 했다.⁴⁰⁾

중국사신이 지참한 황제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서는 詔書였다. 중국사행은 사행 중에 황제문서의 보관을 최우선 업무로 취급했으며, 이에 조선도 황제문서의 보관을 위해 객사에 그 관련 보관처를 별도로 지정해 두기도 했다. 조선시대 일반적으로 한양에 入京하기 전 중국사 행은 벽제관에 조서를 모셔두었는데, 조선도 이에 따라 매년 중국사행 이 출래하면 대신을 파견하여 벽제관에 조서를 모셔둘 것을 요청했 다.⁴¹⁾

38) 『明會要』卷15, 禮10 遣使之蕃.

39) 『승정원일기』541책, 경종 2년 6월 1일 갑인.

40) 『조선중종실록』 권90, 중종 34년 4월 기해.

41) 『조선중종실록』 권90, 중종 34년 4월 무술.

이러한 사신접대에서 벽제관은 조선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조정대신을 파견하여 입경전 유숙하는 중국사신을 위로했다. 그러나 입경하여 진행되는 각종 의식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17세기 중반부터 弘濟院으로 입경직전 유숙지를 옮기는 조치가 취해졌다. 일례로 1648년(인조 26) 청 順治帝는 學士 額色黑을 파견하여 인조에게 청사접대의 절차와 예물을 줄여주는 칙서를 전달했다. 그 내용 가운데 외도감과 관련된 사항으로 순치제가 듣기로 嘉山의 大定江, 安州의 淸川江, 坡州의 臨津江 등 사행로에 있는 강을 도강할 때 搭橋를 만들어 도강했는데, 이를 준비하는 人民의 勞苦가 심하였다. 이에 다리를 만들지 말고, 튼튼한 船隻을 활용하여 도강하도록 하였으며, 청사가 야행할 때 노고가 심하므로 야행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벽제관에서 유숙하지 말고, 弘濟院에서 유숙한 뒤 아침에 한양에 들어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했다.⁴²⁾

순치제의 칙서가 조선에 전달되자 조선은 이에 준하여 이후 홍제원에서 유숙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실제 조선은 벽제관에서 유숙한 중국 사행이 한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저녁 무렵이라 접대에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客館을 홍제원에 설치할 것을 여러 번 청에 요청했다.⁴³⁾

당시 출래한 청사는 직접 홍제원에 설치할 館宇의 圖形을 接伴使에게 주고 곧 營造하게 하였으므로, 太平館과 仁慶宮을 철거하고 남아 있는 재목을 옮겨서 지었다.⁴⁴⁾ 한편, 조선은 중국사행의 입경을 감안하여 벽제관에서 홍제원으로 객관의 이동을 요청하여 외교적 목적은 달성했지만, 벽제관이 있음에 별도로 홍제원을 중국사행을 위한 객관으로 설치하다보니 이의 운영에 민력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가중되었다.⁴⁵⁾

42) 『청세조실록』권36, 순치 5년 정월 무신.

43) 『통문관지』권4, 事天下, 勅使行.

44) 『통문관지』권9, 紀年, 인조대왕 26년 무자.

45) 『조선인조실록』권49, 인조 26년 2월 기축.

조선시대 모든 객사가 관아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주변의 사찰을 객사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객사를 별도로 건립하여 폐단을 없앨 것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례로 1717년(숙종 43) 9월에 閔鎭厚가 입시하여 別星이 객소에 들지 않고 開元寺에 묵는 폐단에 대해 논의하여 관아의 객사를 활용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⁴⁶⁾

한편, 영조즉위 초기에 이인좌의 난으로 정국이 혼란하자 이를 마무리하고, 1731년(영조 7) 9월에 영조는 朴文秀에게 坡州와 高陽의 객소에 전처럼 使客을 들이도록 分付하였다.⁴⁷⁾

이상과 같이 중국사행의 접대공간 뿐만 아니라 벽제관은 조선사행의 중국행에 필수적으로 이용하였던 경로였다. 조선사행이 조선 국내경로의 각 이문에 보내는 사행문서인 先文에 조선사행의 경로가 명시되어 있다.

“碧蹄·坡州·長湍·開城府·金川·平山·葱秀站·瑞興·劔水站·鳳山·黃州·中和·平壤·順安·肅川·安州·嘉山·定州·雲興·林畔·車輦·良策·所串·義州의 길을 따라서 갈 것입니다.”⁴⁸⁾

왕명을 받아 명·청에 사행하여 사행목적은 달성해야 하는 조선사행은 이러한 사행노정을 경유하며, 지역만리를 출행하면서 벽제관을 비롯한 이들 객사에서 사행에 대한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46) 『승정원일기』504책, 숙종 43년 9월 20일 신미.

47) 『승정원일기』731책, 영조 7년 9월 28일 무자. “傳于日 坡州·高陽客舍 依前使客入處事 分付”

48) 『통문관지』 권3, 事大上, 先文.

4. 조선시대 벽제관의 군사·외교사

조선은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지방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원활하게 왕명이 지방사회에 전달되고, 변방의 군국사무가 신속하게 중앙에 보고되도록 통신·교통체계로서 역로체계를 만들었다. 이는 지방사회의 개발과 연관되며, 조세제도 및 군역제도와 연관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비되었다.

조선은 역로를 전국적으로 41개 驛道로 하여 모두 543개 驛을 설치하고, 大路는 12개 역, 中路는 109개 역이 있었다.⁴⁹⁾ 이 역로체계에서 역참이 거미줄처럼 전국에 걸쳐 정비되었지만, 역로의 운영에 많은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역로체계에서 벽제역은 한양으로 들어가는 중요 역참으로 기능하였다.

한편, 조선은 왕정의 전국적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공간으로 객사를 설치하였다. 객사는 왕권을 상징하는 궐패를 설치되어 지방관원이 망궐례 등 중요한 의례를 시행하고, 善政의 표현으로 연회를 베풀어 백성들을 위무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지방 인재를 선발하는 향시의 시행공간으로 객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사회가 연결되는 공간이었다.

국왕의 지방정치에 핵심공간이었던 객사는 역로체계와 겹쳐 운영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관제와 역제는 구분되었다. 벽제관은 국내의 봉명사신이 유숙하는 공간이었으면서 또한, 대외적으로 중국사신이 유숙하는 외교의 공간이었다. 즉, 벽제관은 핵심적인 국내외적 정치·외교의 공간이라 할 것이다.

조선은 국가안보와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대중국관계를 원활히 진행시키고자 전력했다. 명·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은 황제국에서 규정하는 사신접대 절차를 준수하여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외교사건을

49) 조병로, 『한국역제사』, 한국마사회, 194~203쪽.

방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에서 조선은 중국사신의 접대를 위해 영접도감을 설치하여 사신접대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그 핵심적인 절차가 시행되는 한양에서의 의식에 앞서 벽제관에서 중국사신을 유숙하도록 하였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외교의 의식은 그 내용 못지않게 형식도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의식은 현대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관심이 높았다. 즉, 조선시대 대중국관계에서 의례는 그 자체가 가장 정치적인 활동이자 외교적 활동이다.⁵⁰⁾ 이 때문에 조선은 대중국사행에서 각종 의례에 참여하고, 절일에 사행을 파견하기도 했다.

사신파견과 함께 황제를 대리하는 황제문서를 지참한 중국사신을 접대하는 것과 황제문서의 접수절차 및 의식은 조선의 가장 중요한 외교활동이라 할 것이다. 황제문서의 접수는 迎詔儀, 迎勅儀 등과 같은 의례규정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핵심 공간은 한양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양, 즉 서울은 조선의 중요한 외교공간이라 할 것이다.⁵¹⁾

한양에서 시행되는 각종 의주는 중국사신과 세세하게 점검되어 최종적으로 정해지는데, 조선은 의주에서 벽제관에 이르기까지 중국사신의 노정에서 원접사 및 문례관 등을 통해 세부적인 의주를 확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선과 중국사신간의 의주확정을 위한 외교활동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공간이 벽제관이었다. 이를 위해 조선은 필수적으로 벽제관에 입관한 중국사신에게 조정의 대신을 파견하여 사신을 위로하는 한편, 의주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조명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세종대에는 효령대군 李補와 영의정 유정현과 찬성 이종무 등이 중국사신을 벽제관에서 맞이하였으며,⁵²⁾

50) 김경록, 「조선시대 조공체제와 대중국사행」, 『명청사연구』 30, 2008, 111~112쪽.

51) 김경록, 「조선시대 서울의 외교활동 공간」, 『서울학연구』 16, 2008, 참조.

52) 『조선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8월 정해.

이후 영의정 李穰과 참찬 崔閔德이 벽제관에서 중국사신을 맞이하는⁵³⁾ 등 대중국관계에서 중요한 외교사안이 발생하면 사신의 영접에 최대한의 성의를 표현했다.

중국사신이 귀국하기 위해 한양을 출발하더라도 조선은 필수적으로 벽제관까지 대신을 파견하여 전송하는 것이 관례였다.⁵⁴⁾ 明使 黃儼이 돌아갈 때에, 世子가 벽제관까지 나가서 전송하였으며,⁵⁵⁾ 세종대 귀국하는 중국사신을 국왕은 모화관에서 전송하고, 우의정, 호조판서, 도승지 등이 벽제관에서 전송하기도 했다.

벽제관의 역사성은 지리적 위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역사가 임진전쟁 기간 중 벌어진 벽제전투이다. 1593년(선조 26) 1월 25일에서 27일까지 벽제 일원에서 명군과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였던 벽제전투는 벽제관의 지정학적, 군사적 위치를 잘 보여주는 전투였다.

1592년(선조 25) 4월 13일, 부산 絕影島에 상륙한 일본군은 부산진, 동래, 상주, 문경, 탄금대 등을 거쳐 한양을 향해 진격했다. 4월 27일, 忠州 탄금대에서 삼도순변사 申硯이 이끄는 부대가 패배하고 신립, 종사관 金汝叻 등 전사하자 선조는 다음날 西行을 결정했다. 4월 29일,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고, 金命元을 起復시켜 도원수로 삼고 申恪을 부원수로 삼아 한강에 주둔하여 한강방어선을 담당하도록 하고, 邊彥琇를 留都大將으로 삼았다.

선조의 한양에 대한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요하는 민심을 제어하지는 못했다. 정작 호종을 담당하는 군졸이 밤을 틈타 도망하거나 서행 전날 밤에 궁문이 폐쇄되지도 않았을 정도였다.⁵⁶⁾

4월 30일 새벽에 仁政殿에 나와 수종인원과 함께 서행을 시작한 선조는 비가 오는 가운데 말을 직접 타고, 洪濟院을 거쳐 벽제관에서

53) 『조선세종실록』 권31, 세종 8년 3월 갑진.

54) 『조선세종실록』 권32, 세종 8년 5월 임술; 권69, 17년 7월 갑오.

55) 『조선세종실록』 권21, 세종 5년 9월 계미.

56) 『조선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무오.

점심을 먹었다. 선조를 호종하던 병조판서 金應南과 경기감사 權徽이 호종행렬을 영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⁵⁷⁾ 의주까지 피난한 선조에게 명군의 참전소식은 희망의 소식이었다. 선조는 참전하는 명군을 위해 군량을 조달하도록 대신들에게 명령하고, 일본군과의 전투지휘에 관련 된 일련의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평양성전투에서 승리한 李如松은 후퇴하는 일본군을 추격하여 개성까지 진출했다. 개성에서 한양에 집결한 일본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집한 이여송은 화력이 강점인 남병을 개성에 남겨놓고 북병 위주로 추격전을 전개했다. 선봉대였던 查大受가 임진강을 건너 일본군 수색대와 조우하여 낙승을 거두자 이여송은 惠陰嶺을 넘어 벽제관을 경과하여 望客峴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양군 사이에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한양방어 및 추격하는 명군과의 결전을 준비한 일본군은 小早川隆景을 선봉으로 礪石嶺에 주병력을 매복시켰다. 1월 27일 이른 아침부터 명군의 여석령 공격으로 시작된 전투는 일본군의 병력을 과소평가한 전술적 판단오류, 음력 1월말 늦은 겨울날씨로 진흙땅에서 명군의 馬軍이 효율적이지 못한 점 등의 요인으로 명군은 퇴각하였다. 일본군의 추격은 후속으로 참전한 명군 부총병 楊元의 火軍이 저지시켰으며, 일본군은 혜음령을 넘지 못하고 전투는 종결되었다.⁵⁸⁾ 벽제전투는 이여송의 군대가 벽제관 남쪽 5km 여석령에서 잠복하던 일본군에 의해 기습 공격을 받고 패배하여 파주로 퇴각한 전투이다.⁵⁹⁾

57) 『조선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기미.

5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 1987. 158~161쪽.

59) 『碩齋稿』卷16, 祭文, 祭碧蹄戰場文. “昔在萬曆 大歲壬辰 倭奴匪茹 獬我東人 東人曰咨 控于帝庭 桓桓提督 克仗王靈 大旆先之 箕都以復 遂至崧陽 乘羸輕敵 逐北呼嘍 于三十里 碧蹄館下 有伏潛起 月暈野門 狼藉玄黃 山崩海裂 疇恃蹶張 或嬰于鋒 或傷之弓 楚氛甚惡 漢壁迺空 忠臣捐軀 志士喪元 化爲異物 上下煩冤 戰壘蒼茫 蔚有光怪 蔓草荒莽 風雨如晦 嗚矣斯人 何鄉何氏 劫幻流雲 跡同逝水 余守茲土 條條興感 巫陽不來 我鼓坎坎 有餅如堵 有酒如江 如椽者燭 旉翳霞幢 尻輪電馬 蜿蜿蜒蜒 野望無垠 賓僚肅然 英魂烈魄 於焉戾止 惟投降者 毋敢預此 父老在筵 參歎霑裳 福我民社 降康之祥 倭奴昔搶 天將活我 活我則多 奈罹戎禍 我

벽제전투를 기병중심의 명군과 보병중심의 일본군이 치른 전투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수도 있다.⁶⁰⁾ 1593년 1월 하순에 坡州로 남진한 조·명군 騎兵이 일본군 歩兵과 싸운 遭遇戰이란 관점에서 개성부까지 남하한 조명연합군이 군량부족으로 일부 병력만 파주에 주둔시키게 되었으며, 선발대 查大受, 祖承訓 등의 명군 騎兵과 방어사 高彦伯의 조선군이 소규모 일본군과 접전에서 승리했다. 이에 이어송이 전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추격전을 전개하다 매복하였던 일본군 대부대에 의해 패퇴하게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당시 파병된 명군이 남병과 북병으로 부대구성 및 전투경향이 상이하였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선조실록』에 “武器와 甲冑도 전혀 없이 맨손으로 肉薄戰을 전개했다.”라고⁶¹⁾ 할 정도로 전투력이 미흡한 기병 중심의 전투를 시도한 이어송의 전술적 판단오류를 패배원인으로 제기할 수 있다. 기존 전사에서 벽제전투의 패배를 일본군에 대한 판단오류, 지형과 날씨를 고려하지 못한 점, 주 전력이 도착하기 전에 소수 병력으로 전투한 점, 조선과 명군의 강점이었던 화기전력을 활용하지 못한 점 등에서 찾고 있다.

또한, 경솔한 南進, 情報判斷 錯誤, 騎兵作戰 能力의 誤判, 평양성 승리의 주역인 火藥武器의 不在 등을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⁶²⁾ 실제 벽제전투의 상방 전력손실은 동일하게 5~600여명으로 전투규모와 전투피해만 가지고 판단하면 전황을 바꿀 정도로 큰 전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벽제전투는 임진전쟁의 전환점으로 의미가 있다.⁶³⁾

思天將 河岳深崇 無愆終始 永食我東”.

60) 서인한, 「조명연합군 기병작전의 전개 양상」, 『군사』 51, 2004.

61) 『조선선조실록』 권35, 선조 26년 2월 경인.

62) 서인한, 「조명연합군 기병작전의 전개 양상」, 『군사』 51, 2004. 24쪽.

63) 『조선선조실록』 권36, 선조 26년 3월 기미. 명군으로 휴전협상을 담당하였던 沈惟敬은 이어송이 평양성의 일본군을 후퇴하도록 退路를 열어 주어 전력을 회복한 일본군에 의해 패배했다고 인식한 점은 주목된다. 벽제전투의 군사적

벽제전투의 패배는 명군이 일본군과 강화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벽제전투에서 패배한 이여송은 전투의지를 상실하고, 자신의 병력을 온전히 유지하여 철군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요동의 송응창을 면담하여 명군의 전투를 요구하러 사행하였던 홍진이 돌아와 선조에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提督 이여송을 질책하여 전군을 지휘 하도록 하였던 송응창마저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책임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보고했다.⁶⁴⁾

실제 이여송이 벽제전투를 위해 진출한 경로는 임진강을 건너 파주를 경유하고, 벽제관의 북쪽 해음령, 벽제관, 望客岬, 礪石嶺이었다. 여석령을 지나면 바로 창릉, 구파발, 흥제원으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임진전쟁 시기에 군사전략적으로 벽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한양으로 진격하는 주된 경로였음을 보여준다. 전투의 승패를 떠나 벽제관의 군사적 위치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보여주는 역사사건이라 할 것이다.

벽제전투가 벽제관전투로 명칭이 변경된 경위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벽제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며, 벽제관이 가지는 군사사적 의미를 반영한다. 실제 조선은 임진전쟁 당시 벽제지역에서 있었던 이여송의 명군과 일본군의 전투를 벽제전투로 인식하고 표현했다.

조선시대 사료에서 碧蹄館은 대부분 赴京使行 내지 중국사신의 왕래와 접대에 대한 기록이다. 반면에 碧蹄는 지역명칭으로 벽제지역을 왕래하면서 관련된 감상과 일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임진전쟁과 관련된 『선조실록』 등 관찬 및 사찬기록에는 대부분 벽제에서 전투가 있었으며 명군이 패배하였다는 점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 전투가 벽제관에서 있었던 점이 아니라 남쪽으로 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벽제라는 지명을 붙여 벽제전투로 표현한 것이다.

『선조실록』에 수록된 벽제전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도체찰사 우의정

세밀한 검토는 후고를 기약한다.

64) 『조선선조실록』 권37, 선조 26년 4월 을유.

俞泓의 장계이다. 유흥은 이여송의 군대가 평양을 출발하여 벽제에 이르러 일본군과 전투 및 패전경과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체찰사 柳成龍과 도원수 金命元이 대면하여 퇴군을 철회하도록 건의했지만 평양으로 돌아간 사정을 아뢰었다.⁶⁵⁾ 무엇보다 조선의 장계에 이여송이 무리하게 벽제까지 내려왔다가 패배하여 퇴군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이후 다른 임진전쟁 관련 기록에 벽제전투 내지 벽제에서 전투 등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선조·광해군대 梁慶遇의 문집 『霽湖集』에 碧蹄館이란 명칭은 아니지만, ‘碧蹄驛戰場’이란 詩가 있다. 해당 시의 시어에 “역로 가에 말을 멈추어 서니”라는 표현과 같이 실제 벽제관보다는 벽제역의 길게 이어진 驛路를 강조한 시라 할 것이다.⁶⁶⁾

“교만한 장군이 적을 경시하면(驕將輕臨敵)
 이전부터 전공을 못 세우는 법(收功古未聞)
 당시 오랑캐가 승리를 거두어(當時虜一勝)
 한나라 삼군이 거의 죽었도다(幾盡漢三軍)
 전혈에 가을이면 혼불이 일고(戰血秋生燐)
 원기는 밤마다 구름이 되네(冤氛夜作雲)
 역로 가에 말을 멈추어 서니(停驂驛邊路)
 노란 잎만 어지럽게 떨어지네(黃葉落紛紛)”

양경우처럼 벽제역로에서 있었던 전투를 보다 구구절절하게 시로

65) 『조선선조실록』권35, 선조 26년 2월 신묘.

66) 『霽湖集』권5, 詩, 五言律詩, 碧蹄驛戰場. 梁慶遇는 임진전쟁이 발발하자 의병장 高敬命과 함께 활약하다가 殉國한 靑溪 梁大樸의 서얼로 牛溪 成渾의 문인으로, 자신도 임진전쟁에 창의한 의병장이었다. 양대박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양경우는 주로 병기제작의 감독, 의병의 군사훈련을 담당하고, 관군인 절도사에게 격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고경명의 휘하에서 義營文書를 맡고 군사금과 군수품을 관리하였다. 임진전쟁이후 서얼임에도 전공을 인정받아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갔다. 이러한 양경우가 임진전쟁의 양상을 바꾼 벽제전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시가 ‘벽제역전장’이다.

표현한 것 이외에 대부분의 기록은 벽제에서 명군의 패배를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조선시대 벽제전투에 대한 명칭 및 인식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변화되었다. 이미 막부시대부터 임진전쟁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일본은 벽제관을 처음에는 벽제전투가 있었던 지역의 고적으로 인식하였다가 점차 벽제관전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임진전쟁에서 명군을 퇴패시킨 벽제전투를 보다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몇 가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벽제관관련 연구성과에 반영된 벽제관전투의 등장이다. 둘째, 벽제관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셋째, 만주사변이후 벽제관 전적지화 사업의 결과 등이다.

먼저 첫째, 벽제관관련 연구성과는 일제시기 집중적으로 산출되고 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정설로 정착되어 별다른 거부감없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인에 의한 벽제관관련 연구성과는 처음 대구지역 거류민 단장이었던 와타나베 무라오(渡邊村男)가 1922년 저술한 『碧蹄館大戰記』가 시초라 할 것이다.⁶⁷⁾ 이후 1924년 와타나베 킨조우(渡邊金造)가 저술한 『碧蹄の戰』이 있다. 특히 전투명칭에 관련하여 본 책자는 벽제의 전투라고 하여 벽제관전투를 직접적으로 강조하지는 않는다. 이는 본 책자에 부록으로 첨부된 『附幸州城の戰』에서 행주대첩은 직접적으로 행주성을 강조하여 제목을 정한 것과 비교된다.⁶⁸⁾

1916년(대정 5) 4월 1일부로 보병 제 40여단으로 개편된 제 20사단 78연대의 연대장을 역임한 渡邊金造이었다. 일본군 제 20사단은 사령부를 용산에 두고 완전편제로 하면 12,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던 부대로 1919년(대정 8)에 조선군으로 명명되었다가 1937년(소화 12) 청국주둔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939년(소화 14) 조선군으로 편제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1944년(소화 19) 제 18군으로 개편되었다.⁶⁹⁾ 즉, 일본의 한국강점에 가장 핵심적인 부대의 부대장을 역임한

67) 渡邊村男, 『碧蹄館大戰記』, 民友社, 1922.

68) 渡邊金造, 『碧蹄の戰』, 1924.

69) 金正明 편, 『朝鮮駐劄軍歷史』, 日韓外交資料集成 別冊1, 巖南堂書店, 1967. 참조.

인물이 직접 벽제관관련 서적을 저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陸軍 歩兵大尉였던 하세가와 모토이(長谷川基)가 1926년 朝鮮軍司令部에서 편찬한 『朝鮮役の梗概と碧蹄の戰』이다. 하세가와 모토이 역시 일본군인으로 청국주둔 보병 제1연대장을 역임한 인물이었다.⁷⁰⁾ 이후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벽제관보존회 부회장이었던 사에키 도오루(佐伯融)가 1933년 벽제관보존회에서 편찬한 『碧蹄館の會戰』, 서지학자 와타나베 도우수이(渡邊刀水)가 1938년 편찬한 『碧蹄戰史』, 사와키 스구루(佐脇精)가 京城電氣(株)에서 1938년 편찬한 『京電ハイキングコース案内第六輯: 碧蹄館』 등이 있다.⁷¹⁾

와타나베 도우수이의 책자는 ‘임진전쟁과 碧蹄館에 대한 대략적인 회고(碧蹄館と文祿役回顧)’와 ‘京城에서 벽제관까지 일제시기 가설된 도로’, ‘벽제관의 전투(碧蹄館の戰)’, 1938년 당시 ‘碧蹄館と戰蹟記念碑’에 대한 상세한 내용, 벽제관 사업전후 주요 일지와 참고자료 등을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벽제관에 관한 일본인의 연구는 1922년 와타나베 무라오의 책자이후 벽제전투를 벽제관전투로 이름하면서 벽제관이 벽제전투의 핵심위치라고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총독과 관리들의 호칭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벽제전투를 벽제관전투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벽제관전투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역사유적지 즉 古蹟地에서 전투유적지 즉 戰蹟地로 의미전환과정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군부와 총독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된 벽제관 조사작업 및 선양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벽제관관련 고적

70) 長谷川基, 『朝鮮役の梗概と碧蹄の戰』, 朝鮮軍司令部, 1926.

71) 佐伯融, 『碧蹄館の會戰』, 碧蹄館保存會, 1933; 渡邊刀水, 『碧蹄戰史』, 明隣堂書店, 1938; 佐脇精, 『京電ハイキングコース案内第六輯: 碧蹄館』, 京城電氣(株), 1938.

조사 및 현장사업은 기존 학계의 연구성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⁷²⁾ 본 글에서는 이 가운데 일본이 현장사업을 통해 벽제전투를 벽제관전투로 개명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은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사작업으로 역사적 문화유산 조사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했다. 그 시작은 1909년 8월에 동양건축가이자 미술사학자였던 동경제국대학의 세키노 다다스(關野貞)교수를 통감부 탁지부의 고건축물조사촉탁으로 임명하고, 전국의 유적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면서부터였다.

세키노 다다스는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제1과에 소속되어 전국의 사적지를 조사했다. 1911년 고양군 일대를 답사한 세키노 다다스는 벽제관을 강하게 보존의 필요가 인식되는 수준인 ‘병(丙)’으로 부여했다.⁷³⁾ 한편,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이후 경기도 거주 일본인들은 임진전쟁과 관련된 벽제관을 수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1911년 3월 이전에 碧蹄館保存會를 조직했다.⁷⁴⁾

이 시기, 1910년 3월에 통감부의 지방부 관리들이 벽제관에서 원족회를 열고 “임진왜란 시대의 전쟁상태”란 강연을 들었으며,⁷⁵⁾ 4월에는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통감이 벽제관을 방문하기도 했다.⁷⁶⁾ 이처럼 통감부의 고위인사들이 벽제관을 방문하여 자연스럽게 벽제관보존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존회조직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벽제관보존회는 1915년 4월 임진전쟁의 유적인 벽제관 등의 보존·관리와 소개를 위한 碧蹄館古蹟保存會를 조직했다.⁷⁷⁾

72) 김동철, 「임진왜란시기 碧蹄館戰鬪 관련자료와 戰蹟顯彰에 대한 검토」, 『한국민족문화』27, 2006;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한규무, 「일제의 벽제관 전적지 개발과 활용」, 『한국근현대사연구』 78, 2016.

73)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40; 46; 54쪽.

74) 『每日申報』 1910년 11월 17일자, 碧蹄館保存請願.

75) 『每日申報』 1910년 3월 16일자, 碧蹄遠足.

76) 『每日申報』 1912년 4월 30일자, 總督碧蹄館行; 5월 16일자, 總督에게 感謝狀奉呈.

77) 『朝鮮社會教育要覽』, 朝鮮總督府 學務局 社會教育課, 1941. 94쪽.

단순히 벽제관 건물에 대한 보존회 차원에서 벽제관을 중심으로 한 일원의 고적 전반을 보존하자는 경향을 확대된 것이다. 이때 주목되는 점은 벽제관보존 및 현창사업에 대한 기부내역이다.

1915년 7월에 발표된 벽제관보존회 기부자 명단에 전체 기부액 192원 10전 가운데 龍山軍司令部和 兵器支廠 高等官御 일동이 20원을, 朴泳孝 10원, 尹澤榮 10원, 李完用 10원, 閔泳徽 10원, 趙重應 5원, 朴齊純 5원, 張錫周 3원, 李恒久 3원, 金春熙 2원, 韓相鶴 1원, 嚴柱承 1원 등이 기부금을 냈다. 즉, 조선에 주둔한 군부와 친일파가 적극적으로 벽제관보존에 기부금을 냈던 것으로 확인된다.⁷⁸⁾

이처럼 일본의 강점기간 중 고적조사 및 보존사업과 연계되어 벽제관에 1911년 벽제관보존회가 조직되었으며, 일본이 대대적으로 준비하던 박람회(조선물산공진회)를⁷⁹⁾ 앞두고, 벽제관 일대에 대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주로 도로 및 교통 시설이 확충되고 시장과 금융조합이 신설되며 녹화사업이 전개되는 등 개발이 추진되었다.⁸⁰⁾ 즉 강제 병합 이전 이미 유적조사작업의 일환으로 벽제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작업이 추진되었으며, 조선물산공진회를 계기로 정비사업이 병행되었던 것이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벽제관보존 및 개발은 벽제관전적기념비 건립사업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전쟁수행이 본격화되면서 임진전쟁

78) 『每日申報』 1915년 7월 21일자, 碧蹄館保存會寄附者御芳名(第一回).

79) 주윤정, 「조선물산공진회와 식민주의 시선」, 『문화과학』33, 2003; 강민기, 「조선물산공진회와 일본화의 공적(公的) 전시」, 『한국근현대미술사학』16, 2006; 목수현, 「1930년대 경성의 전시공간」, 『한국근현대미술사학』20, 2009; 국성하, 「일제강점기의 박람회」, 『내일을 여는 역사』47, 2012; 송인호, 「일제강점기 박람회의 개최와 경복궁의 위상변동 :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55, 2014; 이정욱, 「조선총독부의 지역지배의 식민지성 : 시정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1915)와 전북」, 『아시아문화연구』 41, 2016; 신근영, 「조선물산공진회(1915) 여흥장 고찰 : 일본연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0-1, 2017.

80) 한규무, 「일제의 벽제관 전적지 개발과 활용」, 『한국근현대사연구』78, 2016. 118~124쪽.

에서 명군을 패배시킨 벽제전투를 당시 남아있던 벽제관에 집중하여 벽제관 본래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전적지로 변화시킨 것이다. 1931년 봄에 발의된 벽제관전적비건립사업은 碧蹄館戰蹟記念碑建設期成會가 조직되면서 본격화되었다.⁸¹⁾ 기성회는 기념비의 규모를 42척 높이에 42척 폭으로 정하고, 기성회를 碧蹄館戰蹟記念碑建設會로 확대했다.⁸²⁾ 1933년 3월부터 기념비에 어울리는 기념지 건설사업이 추진되어 각종 부속사업이 진행되었다.⁸³⁾

이때 주목되는 행사는 1933년 9월 9일 시행된 제막식이었는데, 제막식은 ‘전역전물장사 340년 辰追弔祭’를 겸하여 거행되었다.⁸⁴⁾ 즉, 단순한 기념비의 제막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을 앞두고 역사적인 전쟁에 대한 전물장병 추도의 성격을 포함시킴으로써 벽제관이 마치 임진전쟁의 직접적인 전쟁터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제막식에는 조선총독이 참여하였는데 조선총독의 연설에 “碧蹄館의 會戰”, “碧蹄館會戰記念碑” 등이 들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벽제관전투라는 용어와 개념이 성립되게 되었다. 이후 1930년대 지속적으로 정비 및 확장사업이 진행된 벽제관은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인 전시체제를 홍보하는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되었다.⁸⁵⁾

군사사에서 전투의 명칭을 사용할 때는 전투의 명확한 성격과 역사 의미를 반영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계에서 벽제전투를 벽제관전투로 사용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강점 통치 목적 및 전쟁목적 때문에 바꾼 명칭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한다고

81) 김동철, 「임진왜란시기 碧蹄館戰蹟 관련자료와 戰蹟顯彰에 대한 검토」, 『한국민족문화』27, 2006. 57쪽.

82) 『每日申報』 1933년 7월 6일자, 壬辰戰跡을 紀念코져 碧蹄館에 建碑.

83) 한규무, 「일제의 벽제관 전적지 개발과 활용」, 『한국근현대사연구』 78, 2016. 125~130쪽.

84) 『每日申報』 1933년 9월 10일자, 壬辰役碧蹄館會戰記念碑除幕式.

85) 한규무, 「일제의 벽제관 전적지 개발과 활용」, 『한국근현대사연구』 78, 2016. 130~132쪽.

판단된다. 물론 벽제지역의 전투를 가장 유명한 벽제관으로 대표하여 부르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명칭은 아니지만, 이상과 같이 일본의 의도된 명칭선정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와 연구를 통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중요 객사로서 벽제관의 정치, 군사, 외교사적 의미를 시론적으로 살펴봤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기보다 벽제관의 역사성을 보다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연구과제를 나름대로 제시하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과제로 첫째, 벽제전투의 역사성과 전투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분명 임진전쟁에서 벽제전투는 전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쟁의 양상을 바꾼 전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중일 삼국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중국과 일본학계의 연구목적은 너무나 명확하다. 벽제전투를 통해 자국의 임진전쟁에 대한 영향력과 성격을 부각시키고자 함에 있다. 이에 반하여 현재까지 한국학계에서 군사사적으로 벽제전투를 심도있게 접근한 연구는 사실 전무한 듯하다.

이처럼 벽제전투의 역사성과 전투사적 접근이 축적됨과 동시에 또한, 벽제관전투로 불리게 된 경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다. 군사사를 포함한 역사학에서 명칭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상 임진왜란으로 불리는 임진전쟁도 한중일 삼국이 각각 부르는 명칭이 다른 바로 임진전쟁을 바라보는 한중일 삼국의 역사인식 및 현재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⁸⁶⁾ 거듭 벽제전투와 명칭에

86) 손진태, 『國史大要』, 을유문화사, 1949;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통사』, 과학백과출판사,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전편)』, 국방군사연구소, 1996; 이형석, 『임진전란사』(상·중·하), 임진전란사간

대한 많은 군사사학자 및 역사학자의 관심을 기대한다.

둘째, 현재의 벽제관 위치에 대한 세밀한 고증이 필요하다. 지형적으로 벽제역과 벽제관은 서울에서 파주를 거쳐 개성으로 이어지는 최단 경로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벽제관의 위치는 중국사행이 보다 평탄한 남쪽경로를 경유하여 왕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치에 설치되었다. 이에 대한 역사지리학적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태평관과 연계된 벽제관의 기능과 역할을 세밀하게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선시대 대중국외교에서 사신접대가 가지는 의미를 한양에서의 의식과 함께 조선에서 벽제관에 머무는 중국사행에게 각종 의주를 문의하고 조율하였음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경직 전에 조중간에 이루어진 외교활동의 공간으로서 벽제관이 조망되기 때문이다.

넷째, 벽제관은 중국사행이 유숙하던 객관이자 선정의 객사이며, 역로의 중요지점이라는 종합적인 의미와 함께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대중국관계의 객관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리적으로 대중국관계 객관은 대부분 황해도, 평안도에 위치에 있다. 경기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객관이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을 통해 역사적 의미가 정리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벽제관의 복원이 가지는 의미도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투고일 : 2018. 1. 6, 심사수정일 : 2018. 2. 20, 게재확정일 : 2018. 2. 22)

주제어 : 벽제관(碧蹄館), 객사(客舍), 임진왜란, 역제(曆制), 역참(驛站), 왕정(王政), 선정(善政), 벽제전투, 조명연합군(朝明聯合軍)

행위위원회, 1976; 한명기, 「'난동', '정벌', '원조'를 넘어 : '임진왜란'을 부르는 동아시아 공통의 용어를 위하여」, 『역사비평』 83, 2008;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김기봉, 「1592년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문명사적 관점에서의 성찰」, 『한국사학사학보』 26, 2012; 김강식, 「壬辰倭亂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지역과 역사』 38, 2016;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2016.

〈참 고 문 헌〉

『經國大典』, 『經國大典註解』, 『東文選』, 『대전회통』, 『신증동국여지승람』, 『迎接都監都廳義軌』(奎 14545), 『萬機要覽』, 『通文館志』, 『碩齋稿』, 『霽湖集』, 『조선태조실록』, 『조선태종실록』, 『조선세종실록』, 『조선성종실록』, 『조선중종실록』, 『조선선조실록』, 『조선인조실록』, 『승정원일기』, 『萬曆會典』, 『明會要』, 『청세조실록』 『每日申報』

『朝鮮社會教育要覽』, 朝鮮總督府 學務局 社會教育課, 1941.

고양시, 『고양 벽제관 건축유적지 발굴조사보고서』, 2000

국방군사연구소,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전편)』, 국방군사연구소, 199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 1987.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통사』, 과학백과출판사, 1977

손진태, 『國史大要』, 을유문화사, 1949

윤인식, 『역사추적 임진왜란 - 임진왜란 한국 일본 기록 비교』, 북랩, 2013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이종수, 『류성룡, 7년의 전쟁』, 생각정원, 2015.

이형석, 『임진전란사』(상·중·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조병로, 『조선시대 역참과 파발』,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015.

조병로, 『한국근세 역제사연구』, 국학자료원, 2005

조병로, 『한국역제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2

강민기, 「조선물산공진회와 일본화의 공적(公的) 전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6, 2006

국성하, 「일제강점기의 박람회」, 『내일을 여는 역사』 47, 2012

김강식, 「壬辰倭亂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지역과 역사』 38, 2016
<http://uci.or.kr/G704-001416.2016..38.006>.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2016
<http://uci.or.kr/G704-001528.2016..100.009>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 『한국학보』 117, 2004.

- 김정록, 「조선시대 서울의 외교활동 공간」, 『서울학연구』16, 2008.
<http://uci.or.kr/G704-001254.2008..31.001>
- 김정록, 「조선시대 조공체제와 대중국사행」, 『명청사연구』30, 2008.
<http://uci.or.kr/G704-000731.2008..30.003>
- 김정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44, 2000.
-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박사학위논문, 2014
- 김기봉, 「1592년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문명사적 관점에서의 성찰」, 『한국사학사학보』26, 2012
- 김동철, 「임진왜란시기 벽제관전투 관련 자료와 전적현장에 대한 검토」, 『한국민족문화』27, 2006. <http://uci.or.kr/G704-001560.2006..27.011>
- 목수현, 「1930년대 경성의 전시공간」, 『한국근현대미술사학』20, 2009
- 방학봉, 「발해의 역참에 대하여」, 『선사와 고대』9, 1997
- 서인한, 「조명연합군 기병작전의 전개 양상」, 『군사』51, 2004.
<http://uci.or.kr/G704-001528.2004..51.008>
- 송인호, 「일제강점기 박람회 개최와 경복궁의 위상변동 :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55, 2014
- 신근영, 「조선물산공진회(1915) 여흥장 고찰 : 일본연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60-1, 2017.
- 안준호, 「조선시대 관아의 건축양식학적 고찰」, 대전대석사학위논문, 1998
- 여상진, 「조선시대 객사의 영건과 성격변화」,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5
- 여상진, 심우갑, 「기문을 통해 본 조선시대 객사의 성격 연구」, 『대한건축학회회지』21-4, 2005
- 유영수, 「조선시대 객사건축에 관한 연구」, 고려대석사학위논문, 1989
- 윤재운, 「발해의 역참제와 교통로」, 『고구려발해연구』53, 2015
<http://uci.or.kr/G704-001250.2015.53..007>
- 이연노, 주남철, 「조선초 객사건축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20-12, 2004
- 이정옥, 「조선총독부의 지역지배의 식민지성 : 시정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1915)와 전북」, 『아시아문화연구』41, 2016
- 정요근, 「고려 역로망 운영에 대한 원의 개입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64, 2007

- 정요근, 「고려시대 역 분포의 지역별 불균등성」, 『지역과 역사』24, 2009
- 조병로, 「반계 유형원의 역제개혁론」, 『조선시대사학보』3, 1997
- 주운정, 「조선물산공진회와 식민주의 시선」, 『문화과학』33, 2003
- 최소자, 「淸朝의 대조선정책 - 康熙年間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5, 1996
- 최종희, 성재만, 「조선시대 객사의 입지 및 배치, 조경적 특성 - 벽제관, 전주객사, 금성관, 진남관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27-1, 2009
-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39, 2011
- 한규무, 「일제의 벽제관 전적지 개발과 활용」, 『한국근현대사연구』78, 2016
<http://uci.or.kr/G704-001258>, 2016..78.009
- 한명기, 「'난동', '정벌', '원조'를 넘어 : '임진왜란'을 부르는 동아시아 공통의 용어를 위하여」, 『역사비평』83, 2008
- 한정훈, 「고려말·조선초 경상도 해안 역로망의 재편성」, 『지역과 역사』30, 2012
- 廣田直三郎, 「碧蹄館の會戰」, 『朝鮮講演』1, 1910
- 金正明 편, 『朝鮮樞紐軍歷史』, 日韓外交資料集成 別冊1, 巖南堂書店, 1967
- 渡邊金造, 『碧蹄の戰』, 1924.
- 渡邊刀水, 『碧蹄戰史』, 明隣堂書店, 1938
- 渡邊村男, 『碧蹄館大戰記』, 民友社, 1922.
- 名越那珂次郎, 「碧蹄館役と立花宗茂」, 『朝鮮』174, 1929
- 名越那珂次郎, 「碧蹄館役と小早川隆景」, 『朝鮮』184, 1930
- 名越那珂次郎, 「碧蹄館役と豊太閤の感狀」, 『靑丘叢』3, 1931
- 北島万次 저, 김유성, 이민웅 공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경인문화사』, 2008
- 岩佐蘆人, 「碧蹄館」, 『朝鮮』40, 1911
- 長谷川基, 『朝鮮役の梗概と碧蹄の戰』, 朝鮮軍司令部, 1926.
- 佐伯融, 「碧蹄館の會戰」, 碧蹄館保存會, 1933
- 佐脇精, 『京電ハイキングコース案内第六輯: 碧蹄館』, 京城電氣(株), 1938
- 妻木忠太, 「碧蹄館附近に於ける戰役につきて」, 『史學雜誌』17-8, 1906
- 淺見倫太郎, 「碧蹄館」, 『朝鮮及滿洲』50, 1912
- 幣原坦, 「碧蹄館」, 『歷史地理』8-10, 1906
- 吳緝華, 『明代制度史論叢』第2集, 臺灣學生書局, 1971

<Abstract>

Military and Diplomatic meaning of Byeokjegwan(碧蹄館) in the Joseon period

Kim, Kyeong-lok

The Byeokjegwan(碧蹄館) was a diplomatic space where played a key role in the diplomatic activities with China of the Joseon, and was a place of King's reign(王政) and good governance(善政). Also, It was a military space that brought the turning point of the war situation during the Imjin War(壬辰戰爭). With this historical meaning, although the Byeokjegwan has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the tim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hape of the present Byeokjegwan. In general, the Byeokjegwan has a function as a Kaeksa(客舍) rather than a mistake that recognizes the house as the posthouse(驛站). This i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posthouse system and Kaeksa system. The posthouse is a traffic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established to promptly report and understand the military ambitions of war, including national defense. On the contrary, the Kaeksa was lodging of the envoy of the king, and the king's politics was a space for local society.

Joseon established a Kaeksa as a key space for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King's reign. The Kaeksa was a space where the royal ruler symbolized the kingship, and the local governor performed important ceremonies such as the kingship, and performed a banquet in the expression of the good governance to serve the people. In addition, it is an enforcing space for selecting local talent, and it is a space where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ociety are connected. The guest house, which was the core of the king's local politics, overlapped with the posthouse system, but most of them were separated from the posthouse system. In other words, the Byeokjegwan is a key domestic and foreign political and diplomatic

space.

In previous studies, the term "Byeokjegwan battle(碧蹄館戰鬪)" was used, which should be reviewed academically. Even though there was no actual battle in Byeokjegwan, it was started to be used after being emphasized by Japan. In this paper, I use the term "Byeokje battle(碧蹄戰鬪)", which requires more rigorous research in the future.

The Byeokje battle was a meaningful battle that changed the war situation in the Imjin War. The Joseon – Ming alliance(朝明聯合軍) defeated the Byeokje battles in Byeokje. The defeated Ming soldiers so that they lost their will to fight and were committed to truce negotiations. Joseon opposed the cease-fire talks between the Ming and Japan, claiming full withdrawal of Japanese troops. In other words, the Byeokje battle was a battle that greatly changed the war situation between Joseon, Ming and Japan.

Key Words : Byeokjegwan(碧蹄館), Kaeksa(客舍), Imjin War(壬辰戰爭), posthouse system(驛制), posthouse(驛站), King's reign(王政), good government(善政), Byeokje battle(碧蹄戰鬪), Joseon – Ming alliance(朝明聯合軍)

